

[문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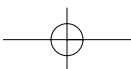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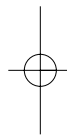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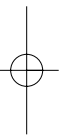
세상적 문화 VS 십자가 문화

	세상적 문화	십자가 문화
하나님	무서운 존재 멀리있는 존재 벌하는 존재 섬김받는 존재	인격적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인간	인간의 가치는 지위, 힘, 가진 것.	1.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는 존재 2.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들린 자에게 동정심 (차별하거나 멀리치 말아야 함) 3. 온전한 사람을 추구.
세상	세상은 돌고 도는 것, 허무한 것, 이용도구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 동반자, 사랑의 대상
삶	돌고 도는 것, 허무한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이웃을 섬기는 삶. 삶의 원칙: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섬김 하나님을 섬김. 고난 받는 사람과 함께 함.
가치	이기주의, 물질, 편함.	기도, 생명, 나눔, 공동체, 기쁨, 의, 최선

[신학 비교]

십자가 신학 VS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	영광의 신학
강조	고난과 말씀	적극적 사고, 성공, 번영
인간의 근본	죄인	선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 필요	별 필요 없음. 스스로를 구원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	내가 원하는 하나님
고난	삶과 신앙의 중심 더욱 하나님을 의지	없어야 함, 저주의 상징
고난을 받는 사람	일치함	차별하거나 멀리함
중심	사명이 중심	자기 축복





제 5단계: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 22: 6-21

2009. 11. 11(수) 11. 14.(토) 강사: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메츠그(Metzger)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닫혀 진 책(a closed book)

그러나 계시록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위로의 책.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이상한 책이나,

특별한 장르(묵시)의 책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참된 의미와 맛을 알게 될 것."

어느 종교학자 :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_____에 있다.”

I. 인간과 역사 :

- 1) 순환 (circular) : 일어나는 사건들은 무한한 순환의 연속. 역사는 계속 반복됨. 새로움이 없음. 인간의 삶은 결정된 힘의 통치 하에 이루어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깊은 염세주의로 나가기도 함.
- 2) 진화 (evolutionary) : 과학적이며 낙관적. 역사는 더 높고 더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함. 역사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대신 무한한 진보(progress)가 목표.
- 3) 변증법적 해석 (dialectic interpretation)
역사에는 갈등이 있음.
거룩한 존재와 악마적 존재와의 갈등(고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의 갈등(공산주의) 등.

- 4) 헬라의 인간 이해 : 이성적 존재, 사회적 존재, 문화적 존재...
역사관이 없음 :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후대 세대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성경(구약)의 역사관 :

- 1)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 :
- 2) 역사는 직선적이며 동적 :
- 3) 세계 역사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미래에 성취될 것.
- 4)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체 역사의 일부분.
- 5) 이들은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
- 6) 서구 사회 역사에 큰 공헌을 끼침.
헤겔 : 역사는 인간의 자유를 향해 나아감.
마кс : 역사는 공산주의를 향해 나아감.

3. 바벨론 포로의 시련 :

구약의 역사관은 바벨론 포로 때에 심각한 시련을 겪음.
선지자들(예레미야, 에스겔 등)이 바벨론 포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회개와 재 헌신을 요구함.

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8.27 ~ 1831.11.14]



칸트 철학을 계승한 독일 관념론의 대성자이다. 18세기의 합리주의적 계몽사상의 한계를 통찰하고 '역사'가 지니는 의미에 눈을 돌린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모든 사물의 전개(展開)를 정(正)·반(反)·합(合)의 3단계로 나누는 변증법(辯證法)은 그의 논리학과 철학의 핵심이다.

4. 헤겔의 역사 철학 :

- 1) 중심관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느냐?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 2) 인간 사회의 불행 : 개인과 사회가 하나님과 대립하기 때문.
- 3) 정신(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는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
- 4) 역사란?
자기를 하나의 대상으로 외화(外化)시키고 대상의 부정적인 것을 부정함으로,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신(Geist)의 변

증법적 자기운동.

5) 정신의 본질 : 활동성(고정된 실체가 아님)

이 정신이 자신을 외화(外化)시키는 가장 본질적 대상 : 인간의 의식.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을 사용하심. 개인은 무의식 중에 정신의 공통 원리를 실현함. 이러한 인간은 항상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감.

6) 이는 자연의 과정과 다름 : 여기에는 새로움이 없으며 단지 순환일 뿐.

역사의 목표 :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

* 희랍의 역사관 : 원형 운동.

5. 계시록 :

1) 저자: 요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말년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밧모섬에 유배당함.

2) 밧모 섬 :

터키 서해안에서 30마일 떨어진.

로마 시대에 밧모섬은 정치적인 죄수들의 유배지.

3) 기록 관점 : 성령 안에서!

이는 일상적인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

우리 스스로 계발한 관점이 아니라 주어진 것.

우리는 응답할 뿐.

4) 황제 숭배 : (emperor worship)

요한의 유배는 도미티안 황제(81-96) 때이며,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교회와 갈등을 일으킴. 요한이 이를 반대함.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도미티안 이전부터 시작됐음.

네로 황제((54-68년)의 박해.

5) 계시록의 인간 이해 :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우리 모두는 역사의 흐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역사의 과정(process) 안에서 살고 있음.

요한의 확신 : 외적인 환경이 어떠한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됨

이러한 견해는 결코 피상적인 낙관론이 아님. 세상은 당연히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

하나님은 결코 세상과 그 문제들과 떨어진 곳에 계시지 않음.

6) 예술적 언어 : 문자적 해석은 요한의 본래 의미와 전혀 무관함.

7)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중심 질문:

가. 세상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 우리가 속한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 현실의 부패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현실 가운데서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결론. 성경과 역사 :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유대인들의 역사가 전체 세상의 역사에 참여하는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한 민족의 부르심이 아니라 전 세상을 위한 부르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역사관은 심각한 시련을 겪음.

아울러 역사의 외적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를 찾음. 세상과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감.